약진하는 해외 석유메이저들의 흑자경영

석유메이저들의 수익이 96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. 지난 15년동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석유회사들이 지난해 부터 그 옛날의 화려했던 명성을 다시 일깨우듯 호황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.

올해 상반기에도 석유회사들의 영업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석유업계만은 불황속에서 그래도 호황을 구가하는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.

작년에는 원유의 탐사와 굴착 등 상류부문에서 많은 소득이 있었으나, 올 1/4분기에는 상류부문에서, 그리고 2/4분기에는 하류부문에서 서로 상호보완 형태의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 석유회사들의 약진이 돋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.

최근 OGJ지가 발표한 미국계 석유회사들의 금년 1/4분기 영업실적 조사결과에 의하면, 전년 동기에 비해 평균 총 수익이 15.4%나 증가하였고, 2/4분기에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유메이저들의 약진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1/4분기의 수익이 이렇게 증가한 까닭은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전년에 비해 강세를 보인데 기인하며, 원유수요의 증가 또한 수익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OGJ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.

이어서 2/4분기에도 Exxon, Chevron, Texaco, Mobil, Amoco 등 5대 석유메이저들의 순이익은 물론 군소 석유회사들도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.

2/4분기 중에는 1/4분기와는 달리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전반적인 약세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익이 증가하게 된 것은 하류부문에서의 수입증가와 각종 수익성 개선 등 기업자체의 지속적인 비용절감 등에 힘입은 결과로 보고 있다.

이와같이 해외의 석유회사들은 유가가 상승하면 상류부문에서,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정제마진의 증가 및 경비절감 등에 따른 하류부문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.

석유회사들은 2/4분기중 상류부문의 수익감소와 유가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탐사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5~30%정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. Mobil의 경우 상류부문에 2/4분기중 전년동기보다 무려 30%를, Texaco와 Amoco 등도 15% 이상 더 투자하고 있다. 〈해외석유개발협회 협회소식〉

'97년 1/4분기

	당기순이익 (백만달러)		
	1997	1996	증감(%)
Exxon	2,175	1,885	15
Texaco	980	386	154
Chevron	831	616	35
Mobil	826	736	12
Amoco	674	728	-7
계	5,486	4,351	26.1

'97년 2/4분기

	당기순이익 (백만달러)		
	1997	1996	증감(%)
Exxon	1,965	1,570	25
Texaco	571	689	-17
Chevron	1,447	1,277	13
Mobil	850	783	9
Amoco	622	600	4
계	5,455	4,919	10.8